

연구논문

# ‘남선경영설(南鮮經營說)’의 일본사적 의미

1890년대 저작『조선사(朝鮮史)』와  
『고본 국사안(稿本 國史眼)』을 중심으로

---

정상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국근대사 전공  
jsw@seoultech.ac.kr

---

I. 머리말

II. 한국사에 대한 최초의 근대 역사학적 서술 속의 남선경영설

III. 제국대학 국사학과 초대교수들의 일본사 서술과 남선경영설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로도 알려진,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남선경영설(南鮮經營說)’은 과거를 통해 현실의 침략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논의였다. 8세기 초에 편찬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이하 ‘기기’)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은 13세기 후반 몽골의 일본 공격, 16세기 말 임진왜란 등과 같은 전쟁기에 일본 사회에 회자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이래 확산되어, 한국 강점 전후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인 진구[神功]황후의 신라정벌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엮서, 지폐 등의 도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남선경영설은 그 자체로 전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었다.<sup>1</sup> 잘 알려져 있듯이 식민지기 한국사를 연구했던 주요한 일본인 역사가들은 모두 고대 야마토 정권이 가라(加羅)의 소국(小國)들에 자신들의 관가(官家, 日本府)를 두어 한반도의 정치체들을 보호·지배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는 1945년 이후로도 한동안 일본학계에서 정설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현재 학계의 절대 다수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분국설, 기마민족설 등의 견해들이 제출됨과 아울러 1970년대 이래 고분 연구를 중심으로 고고학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다수의 연구자는 고대 한일 관계를 어느 한 측이 일방적인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지배했던 것이 아닌 한·일의 정치체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교섭했다는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

※ 이 논문은 2024년도 대우재단 학술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일본에서 남선경영설의 역사적 변주·확산과 1945년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성시(저), 박경희(역), 「삼한정벌-고대 한반도 지배 담론」,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동아시아사의 행방』(서울: 삼인, 2019), 48~80쪽 참조.

한다.<sup>2</sup> 하지만 몇 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발간한 역사서가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되었다며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설 자리를 잃은 이 논의가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 그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현재 학계에서 폐기한 4~6세기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연구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 일본인 역사가들에 의해서였고, 그 문제점은 누차 지적되었다. 남선경영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대사, 고고학 연구로 고대 한일관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상이 그려지는 한편 식민지기 왕성하게 활동하며 남선경영설로 대표되는 한국고대사를 연구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등 주요 일본인 역사가들의 주장 자체가 갖는 문제점, 바로 이들은 사료의 오독과 자의적 선택을 통해 남선경영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sup>3</sup>

남선경영설이 침략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인의 위치에서 통치 이데올로기로써 남선경영설을 논한 것이다. 그런데 남선경영설과 같은 한일관계사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만이 아니라 일본사의 범주에도 속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만 남선경영설을 주장했던

2 1945년 이후의 논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태식, 「고대 한일관계 연구사: 임나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7(2002); 이연심,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2015); 위가야, 「삼한·삼국 분국설의 구상과 파급」, 『史學研究』 137(2020); 권오영, 「일본 아스카 시대 묘제와 장제에 나타난 한반도계 이주민의 영향」, 『人文論叢』 80-3(2023) 등을 참고할 것.

3 崔在錫, 『日本古代史研究批判』(서울: 一志社, 1990). 이 저작은 1980년대 이래 저자가 위에서 열거한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고대사 연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한 논문을 묶고, 보완한 것이다.

것일까? 식민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2010년대 이후,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이하 ‘식민주의 역사학’)가 지닌 침략주의적 속성만이 아니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성격을 주목하고 있다.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동시적이었기 때문에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경계가 모호했던 일본의 역사가들이 주장한 남선경영설은 아마토 조정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의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기에 활동한 일본의 역사가들은 남선경영을 기정사실로 고정한 채 이러한 해외 경략의 전제가 되는 아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적 권력 수립과 남선경영을 가능케 한 발전 동력을 아마토 조정 등 고대 일본의 정치체들이 낙랑군과 같은 한반도 내 중국 군현과 교통하며 받아들인 선진문물에서 찾음으로써, 섬나라 일본의 역사를 기원 전후라는 먼 고대 이래의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 냈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연구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지닌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남선경영설을 침략 논리이자 아마토 조정의 발전 서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일본사적 맥락에서 남선경영설을 바라보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강점 이후 일본인 역사가들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 강점 후 조선총독부의 주도와 지원 속에 한국에 대한 현지 조사와 발굴, 한국사 편찬사업 등이 본격화되었으며,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전문 역사가들이 이에 대거 참여, 그 결과를 활용해 위와 같은 역사상을 그려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남선

---

4 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62(2021); 김성현·정상우, 「쓰다 소키치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정벌을 통해 어떠한 歷史像을 그려냈는가」, 『史學研究』 145(2022); 정상우,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 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2024); 김성현·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5(2024).

경영설이 일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강점 이전인 19세기 말, 즉 근대에 들어서였다.

개항 직후부터 서구 학문을 수용하기 위한 일본 사회의 노력은, 1877년 도쿄대학[東京大學]의 개교로 귀결되었지만, 사학과(史學科)는 없었다. 물론 도쿄대학 당시에 역사 연구를 위한 교육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문 역사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를 목표로 하는 사학과가 개설된 것은 제국대학으로 개칭하고 나서도 1년 후인 1887년이였다. 이해에 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사학과가 증설되어 역사학 강의가 개설되었고, 이를 담당한 것이 그 유명한 독일인 루드비히 리스였다. 랑케의 제자로 알려진 그가 사학과 강의를 맡음으로써 독일류의 랑케 사학이 이식·확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1889년에는 사학과와 별도로 일본사 교육·연구를 위한 국사학과(國史學科)가 설치되어, 당시 메이지 정부의 수사(修史) 사업을 주도하던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1827~1910),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1839~1931), 호시노 히사시[星野恒](1839~1917)가 국사학과 초대 교수로 부임하였다. 또 이해에는 리스의 주도로 일본 최초의 역사학 전문학회인 사학회(史學會)가 발족, 시게노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즉 독일 역사학의 학풍과 더불어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 역사가의 교육·배출을 위한 대학의 사학과 및 전문 역사가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사전문학회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역사학계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이었다. 제국대학 사학과와 국사학과 설치로 “일본 근대 사학사에서 하나의 획기”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이 때문이다.<sup>5</sup>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에 의해 근대 역사학적 서술이 본격화하였다. 국사학과가 창설되었던 때, 교육·연구를 위한 일본사에

---

5 나가하라 게이지(저), 하종문(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서울: 삼천리, 2011), 47쪽.

대한 서적이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이에 제국대학 국사학과 초대교수 3인이 학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공동집필한 『고본 국사안(稿本 國史眼)』(이하 『국사안』)이 1890년에 출간되었다. 때문에 이 저작은 대학에서의 일본사 교육과 근대 역사학적 서술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또 이 책이 발간된 지 2년 후인 1892년에는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통사라고 평가받는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1854~1922)의 『조선사(朝鮮史)』가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저작들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으로도 평가된다. 즉 일본의 침략 논리는 『국사안』에서 학문적으로 수렴되기 시작했고, 이 책은 중등교육용 교재의 저본이 되어 학계에는 물론 일본인의 한국관에도 지대한 해악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선사』 역시 한국사 왜곡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된다. 이들 저작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스사노오[素盞鳴尊]를 조선의 개국 시조로 보거나, 임나일본부의 설치,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등을 서술했기 때문이다.<sup>6</sup>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870년대, 한국 개항 이전 일본인에 의한 한국사 서술은 단군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이나 임나일본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은 채 “거의 왜곡되지 않는 서술로 일관”된다고 한다.<sup>7</sup>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남선경영설이 학계에 등장한 것은 1890년대 초였으며, 이후 학계는 물론 일반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1890년대 초반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과 역사학계가 막 성립하던 때로, 이때부터 남선경영설이 대학교수, 졸업생에 의한 역사서술에 등장해 안착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성립이 동시

---

6 趙東杰, 『現代韓國國史學史』(서울: 나남출판, 1998), 258~259쪽; 최재석, 「1892년 하야씨 타 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고대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8(2003), 242쪽; 최혜주,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2010), 282~298쪽, 307쪽.

7 최혜주, 위의 논문, 276~279쪽.

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성립기인 189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 등장해 안착해 버린 남선경영설은 침략 논리로만 기능한 채 일본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무용한 것이었을까?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진구황후의 신라정벌로 대표되는 남선경영설은 13세기 후반 원구나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인들에게 회자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른바 근대 역사학이 성립하던 1890년대 초반에 등장한 남선경영설은 과거의 주장이 반복된 것일 뿐이었을까? 근대 역사학을 민족의 발전 과정에 대한 실증이라고 했을 때 근대 이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종종 회려했던 남선경영설은 근대 역사학 성립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또 일본사의 전개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하야시의 『조선사』에서 남선경영설의 서술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출간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은 『조선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를 대상으로 이 책자에서 남선경영설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외에 일본사의 맥락에서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면 그것은 기왕의 다른 저작, 특히 2년 전에 출간된 『국사안』으로 대변되는 일본사에 대한 서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에서이다. 이에 먼저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통사라고 평가되는 『조선사』에서의 남선경영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일본 최초의 국사학과에 초대교수로 부임한 이들에 의한, 당시 전무했던 대학에서 자국사 교육·연구를 위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본사에 대한 통사인 『국사안』에서는 해당 논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제시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성립되던 당시에 나타난 남선경영설의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이후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사에 대한 최초의 근대 역사학적 서술 속의 남선경영설

---

1892년에 발간된 하야시의 『조선사』<sup>8</sup>가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사 서술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적인 편년체 서술이 아닌 각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는 인과관계에 따른 장절로 구성되어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여 연속체로 파악하는 가운데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문화사, 사회사 등에 해당하는 문학, 기예, 산업 등을 정리·제시했기 때문이다. 1854년에 지바현(千葉縣)에서 출생한 하야시는 어려서는 고향에서 한학(漢學)을 수학한 후 도쿄대학에 입학해 1887년에 고전강습과(古典講習科)를 졸업했다.<sup>9</sup> 즉 그의 학문적 기반은 한학이었다. 하지만 사학과나 국사학과의 없던 당시 고전강습과의 교육 내용은 역사학, 정치학 등의 연구에 필요한 일본과 중국의 고전·역사·문학으로 현재의 일본사, 중국사 등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고전강습과의 학풍은 확실한 자료에 의거해 실증한다는 고증학이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고전강습과를 졸업한 그가 역사를 연구·저술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후술할 『국사안』의 저자인 제국대학 국사학과 초대교수 3인도 고증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본학계에서 동양사의 태두라고 평가되는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瓊次郎)나 그와 함께 『지나사(支那史)』

---

8 林은 책의 「凡例」에서 한국사를 ‘太古(箕子朝鮮~漢郡縣 설치 이전)-上古(三國鼎立~新羅 敬順王)-中古(高麗 太祖~恭讓王)-近世(朝鮮 太祖~현재)’의 4시대로 구분했다. 하지만 『朝鮮史』는 中古까지만 서술되었다. 林은 『朝鮮史』를 출간한 지 9년 후인 1901년 近世에 해당하는 조선 시대를 서술해 『朝鮮近世史』를 출간했으며, 1912년 이 두 권의 저작을 정리하여 『朝鮮通史』를 발간하였다.

9 古典講習科의 설치와 변화에 대해서는 町田三郎, 「東京大學『古典講習科』の人々」, 『哲學年報』 51(1992), 61~63쪽. 한편 林泰輔의 이력과 평가에 대해서는 鎌田正, 「林泰輔」, 江上波夫(編), 『東洋學の系譜』(東京: 大修館書店, 1992), 14~17쪽을 참고.

(1891~1892)를 공저한 타키가와 가메타로[瀧川龜太郎] 역시 하야시의 동기로 고전강습과 졸업생이었던 것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성립기였던 1890년대 초에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 하야시 역시 대학 졸업 후 한국사 연구를 개시해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일본학계에서 “조선사 연구의 효시”라고 평가되는 『조선사』를 출간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실제로 『조선사』 발간 이후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가 대거 등장했는데, 이때 『조선사』는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한국사 최초 서술로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로 기능하며 저들의 한국사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었다.<sup>10</sup>

하야시는 『조선사』 저술 이유를 그 「서(序)」에서, 유사 이래 “3천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던 한일교섭의 중요성이 개항 이후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小邦)이지만 동양(東洋)의 인후(咽喉)로 대국(大國)이 반드시 싸우는 요충”에 있는 한국은 일본과 근접해 “그 안위존망이 순치(脣齒)여서 일단 변이 있으면 우리는 좌시할 수만은 없”는 반면 “안정되어 무사하면 통상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금일 유용한 학문과 사업에 힘쓰려는 자는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19세기 말의 시점에서 일본의 안정과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런 서술 직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조선이 우리와 통한 것은 오래되었다. 태고의 일을 전하는 籍은 사라져 그 상세함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피차의 내왕은 그 跡을 끊기지 않았음은 의심할 바 없다. 神功(진구황후-인용자)이 征討하자 그 命을 받들어 貢를 바친 이후 남방 일대는 우리의 經略에 속해 府를 세우로 帥를 두어 통치에 더욱 힘썼다. 이때 학술,

10 稻葉岩吉, 「東洋史學發達の回顧と展望: 朝鮮史」, 『明治以後に於ける歴史學の發達』(東京: 歴史教育研究會, 1932), 521쪽. (여기서 稻葉은 메이지 이후 한국사에 대한 연구사를 서술하며 林의 『朝鮮史』를 가장 먼저 거론하였다.)

공예가 계속 이르러 우리의 문화를 도운 것이 적지 않았다." (밑줄은 인용자)

이처럼 하야시는 책의 「서」에서부터 오래된 한·일의 교통은 물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의 설치 및 그 일대 경략이라는 남선경영을 서술했다. 그런데 남선경영 당시에 학술과 공예가 야마토 조정에 들어와 그 문화 발전을 도왔다고 한다. 즉 남선경영은 한일관계가 일본의 국익임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선례였다. 「서」에서 밝힌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되었음은 물론이다. 야마토 조정의 남선경영에 대한 사항은 『조선사』의 제6장(가락, 임나 및 신라[駕洛任那及耽羅])과 제7장(지나 및 일본의 관계[支那及日本ノ關係])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A. 大伽耶는 우리 崇神帝 때 蘇那曷叱知를 사신으로 보내 鎭將을 빌었다. 帝는 鹽乘津彦을 보내 鎭守시켰다. 또 왕자 阿羅斯等도 우리에게 來朝했는데, 길을 잃어 垂仁帝 때에 도착해 비로소 알현했다. 帝는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또 國名을 고쳐 任那라고 했다. 아마 길을 잃지 않았다면 御間城天皇 즉 崇神帝를 섬기며 御名을 負했을 것이다. 神功皇后 때에는 國王 외에 다시 日本府가 있었다. 比自比,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7國이 여기에 속했고, 후에 더욱 부근의 小國을 병합하여 모두 任那라 했다. 重臣이 항상 駐節했고 諸韓의 일을 통제했다. 그러나 누차 新羅에게 침략당해 토지가 점점 줄어들었다. … 그후 新羅 때문에 멸망하기에 이르러서는 …<sup>12</sup>

B. 百濟는 近肖古王 때 일본의 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복한 후로 처음으로 일본에 복속하여 누차 方物을 바쳤다.<sup>13</sup> (밑줄은 인용자)

11 林泰輔, 「序」, 『朝鮮史』 卷1(東京: 吉川半七, 1892), 1~2쪽.

12 林泰輔, 『朝鮮史』 卷2(東京: 吉川半七, 1892), 21~22쪽.

13 林泰輔, 위의 책, 29쪽.

A는 야마토 조정에 의한 남선경영의 시작과 진구황후대의 변화, B는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백제의 조공에 대한 하야시의 서술이다. 10대 천황인 스진[崇神]대에 이미 일본의 장군이 대가야의 어딘가에 “진수”했다는 서술은 이때 처음으로 야마토 조정의 군사가 남선 지방에 주둔했다는 것으로, 하야시는 남선경영의 기원을 여기에서 찾았다고 하겠다. 또 그는 신라정벌이 있었다던 진구황후(14대 주아이[仲哀] 천황의 비) 당시의 “일본부”에는 가라 등 7개의 소국이 복속되어 있었는데, 주변을 병합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했고, 이후 백제 등이 조공했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야시에게 진구황후대는 남선경영의 획기를 이룬 시대였다. 하지만 이후 강성해진 신라에 의해 임나는 축소되어 멸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야시가 그린 남선경영의 역사상(歷史像)이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일본서기』에만 실려 있다.<sup>14</sup> 그런데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일본서기』에서 기원하는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등의 이야기는 근대 이전 몽골의 일본침략이나 임진왜란 당시에도 회자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통사인 하야시의 『조선사』에서의 남선경영설은 과거의 주장이 반복되었던 것일까?

한편 하야시는 『조선사』에서 삼국의 풍속, 각종 제도 등에 대해 각기 장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는데, 이처럼 정치적 사건 외에 문화에 대한 사항을 실은 것이 『조선사』가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사 서술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삼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하야시의 시각은 “대저 삼국의 문물은 지나에서 전래한 것이 많다.”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의 이식이라는 것이었다.<sup>15</sup> 일례로 삼국의 불교·유교와 관련하여 명승과 유학생의 왕래·활동·업적 등을 정리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화

14 崇神代에 가야에서 蘇那曷叱知를 보내 구원을 요청한 것은 『日本書紀』崇神紀 65년 7월조, 7국 평정과 이에 이은 백제의 조공은 神功紀 46년, 49년, 52년조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5 林泰輔, 『朝鮮史』卷3(東京: 吉川半七, 1892), 77쪽.

가 상당 수준을 성취했다고도 했지만 결국 이는 중국을 통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삼국의 제도, 문화 등에 대한 하야시의 서술은 한민족의 문화적 창조능력을 부정하는 소위 타율성론에 입각해 있었음도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하야시의 서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C. 聖王은 사신을 梁에 보내 涅槃經義를 請하고, 또 釋迦佛, 金銅像, 幡蓋經論을 日本에 獻했다. … 威德王도 역시 經典과 佛像, 禪師를 우리에게 보낸 일이 여러 번이다.<sup>16</sup>

D. 백제의 유교는 그 시초가 상세하지 않지만, 近肖古王 29년(日本紀元 1034년) 高興을 博士로 삼았다. 그 후 또 博士 王人 및 論語를 보냈다. … 백제가 王人 및 論語를 우리나라에 貢한 것이 古事記에는 肖古王 때라고 하는데 아마 近肖古王을 가르키는 것인 듯하다. 近肖古王 이하 6명의 王의 年代가 書紀(日本書紀-인용자)와 韓史와는 120년의 차이가 있는데 干支가 부합하는 것에 따라 이를 추정하면 阿花王의 때가 맞다. … 백제에서는 … 아직 文字로 일을 기록하는 것은 없었는데 … 近肖古王 29년 高興을 博士로 하면서부터 처음으로 書記(기록하는 일-인용자)가 생겼다. 그 후 博士 및 論語, 千字文을 日本에 獻했다. 또 祗班 學劄을 우리에게 전했다. 우리 日本紀(日本書紀-인용자)에서 인용한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는 필시 그 國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시 상당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밑줄은 인용자)

이는 남선경영 당시 백제로부터 불경과 불상, 한문과 유교 등이 일본에 헌상되었다는 것이다. C는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불경을 청해 받고, 불상과 경

16 林泰輔, 위의 책, 56쪽.

17 林泰輔, 위의 책, 55~59쪽.

전 등을 일본에 바쳤다는 것으로, 백제는 중국의 불교를 일본에 전해 주는 가교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려진다. 한편 유교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箕子) 이래 전해졌지만 반포되지 않은 채 1천 년을 지나 고구려가 흥기하고 소수림왕 2년 대학(大學)이 설립되며 융성했다고 한다.<sup>18</sup> 즉 그 기원은 중국인 기자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D에 따르면 백제에서 유교의 시초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근초고왕대 박사의 등장 이후 백제왕이 이들을 일본에 바쳐 논어와 한문 등이 전해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하야시는 의술, 회화, 도기 제작술, 기직(機織) 등도 백제만이 아니라 신라, 고구려의 조공을 통해 일본에 들어왔다고 서술했다.<sup>19</sup> 즉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삼국의 조공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불교, 유교는 물론 각종 기예, 기술 등이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선경영은 당시 일본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진문물, 특히 불교와 유교로 대변되는 중국에서 기원한 문화의 수용 계기였다. 즉 일본사적 맥락에서 남선경영은 야마토 조정의 한국지배와 더불어 사회 내부적 발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문화를 도운 것”을 수용하게 된 계기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한국사에 대한 최초의 통사로서 『조선사』에 서의 남선경영에 대한 서술의 특징은 인용문 A, B, D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A와 B에 나타난 사건은 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② 진구황후의 7국 정벌, ③ 백제왕의 최초 복속이다. 이를 전하는 『일본서기』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각각 ①은 200년, ②와 ③은 249년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조정에 복속을 약속한 백제왕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야시는 B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근초고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근초고왕은 4세

18 林泰輔, 위의 책, 54쪽.

19 林泰輔, 위의 책, 62~66쪽.

기 당시, 『삼국사기』에 따르면 346년부터 375년까지 재위했고, 여기에는 왜에 복속을 약속했다거나 조공했다는 기사가 없다. 기사 내용의 차이는 차치한다 해도, 『일본서기』에 나타난 백제의 일본 조공 시기와 그 주체인 근초고왕의 재위 기간은 양자의 시점이 맞지 않는다.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율령국가의 정사에 걸맞게 중국 정사와 같은 편년체로 서술되어, 모든 기사에는 연월—적어도 연(年)이 붙어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고사기』와 어긋나기도 하고, 천황의 재위나 생존 기간이 너무 긴 경우가 많다. 기기의 사실성이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며, 이는 여기서 나타난 시기의 불일치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남선경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일본서기』의 기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예도 막부 후반부터 벌어졌다고 한다.<sup>20</sup> 특히 일본의 개항 이후 서구의 학문이 들어오던 당시, ‘동양사’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일본상세기년고(日本上古年代考)』가 알려진 1888년 이후 역사학자들과 신도 관계자들과의 사이에서 기기의 기년 조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기기의 기년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나카 등의 생각은 기기를 신성시하던 신도 관계자들이 볼 때 불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기의 기년을 조정하는 것은 과거를 인과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이해하기 위해, 즉 근대 역사학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는데, 당시 메이지 정부의 수사사업을 담당했고 훗날 제국대학 국사학과의 초대교수로 부임한 3인은 나카의 입장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다.<sup>21</sup> 나카는 『일본서기』의 찬자들이 일본의 건국을 끌어 올려 상대 천황들의 재위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기년연장설(紀年延長說)’을 제기하며 20대 천황인 안코[安康]까지 『일본서기』의 기년은 신빙하지 않았다고 한

20 李永植, 「日本書紀의 研究史와 研究方法論」, 『한국고대사연구』 27(2002), 177쪽.

21 19세기 말의 기년 논쟁에 대해서는 정상우, 앞의 논문(2021), 20쪽 참조.

다. 그런데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등 한국의 역사서에는 종종 같은 내용이 동일한 간지로 실려 있는데, 이 경우 『일본서기』의 기년에 120년을 더하면 양측의 시점이 일치한다. 이른바 ‘2주갑 인하설’이다. 일례로 『일본서기』에 따르면 진구황후의 섭정은 200~269년인데, 364년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내 물왕 9년조에는 왜병(倭兵)이 침략했다는 기사가 있다. 364년에서 120년을 뺀 244년은 『일본서기』의 진구황후 당시여서, 나카는 이 기사를 신라정벌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을 『일본서기』에서 전하는 3세기가 아닌, 여기서 120년을 더한 4세기의 일로 보았다는 것이다.<sup>22</sup>

D에서 『일본서기』와 “한사(韓史)와는 120년의 차이가 있”다는 구절에서 명확히 제시했듯이, 하야시는 ‘2주갑 인하설’에 따라 남선경영을 서술하였다. 『고사기』 오진(應神)(진구황후의 아들로 15대 천황)대에 따르면 화이길사(和邇吉師, 왕인)가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일본서기』에서는 이를 284년에 해당하는 오진기 15년조에서 전한다. 하야시는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이 전래될 당시 백제왕은 아화왕이라고 결론내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2주갑 인하설’이다. 즉 284년에서 120년을 더한 404년 당시 백제의 왕은 아화왕(=아신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A, B의 3개의 사건인 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320년, ② 진구황후의 7국 정벌 및 ③ 백제왕의 최초 복속은 369년의 일이 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369년 당시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므로 하야시는 아마토 조정에 복속을 맹세하고 조공을 시작한 왕은 근초고왕이라고 단언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하야시가 저술한 『조선사』에서의 남선경영설은 당시 제시되었던

22 那珂通世의 기년론에 대해서는 李永植, 앞의 논문(2022), 179~180쪽 참조. 이에 따르면 ‘2주갑 인하설’은 本居宣長이 1789년에 처음 제기했는데, 那珂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위에서 설명한 ‘紀年延長說’을 제시하는 한편 『三國史記』 奈勿王 9년조를 통해 新羅征討說話를 역사적 사실로 파악했다고 한다.

나카의 기년론에 입각해 있었으며, 이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야마토 조정은 남선을 경영했고 이후 삼국의 조공을 통해 받아들인 선진문화가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전설 또는 설화에 가까운 기기에 근거한 주장들이 기기의 기년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사』에서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 후반 몽골 사신이 일본에 갈 때 고려왕이 길잡이를 붙여 주었다는 것이 이후 등장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사항이었다.<sup>23</sup> 한국사 서술을 목적으로 한 『조선사』는 한국사에 등장한 왕조의 추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외교 또는 문화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일본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만 단속적으로 등장한다. 때문에 일본사의 맥락에서의 남선경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본 사회발전이라는 일본에 이익을 가져다준 계기였다는 것 외에 남선경영과 당시 선진문화의 유입을 전후한 일본 사회의 추이나 변화를 서술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 III. 제국대학 국사학과 초대교수들의 일본사 서술과 남선경영설

---

1889년에 제국대학에 국사학과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이다. 이렇게 국사학과가 설치되었지만,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응용(應用)의 사편(史編)”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 학과 교수로 부임한 시게노, 구메, 호시노

---

23 林泰輔, 『朝鮮史』 卷4(東京: 吉川半七, 1892), 23쪽.

3인은 이듬해 『고본 국사안』을 저술·출간하였다.<sup>24</sup> 이 저작은 제국대학 국사학과와 초대교수들에 의한 일본사에 대한 통사였기 때문에 이후 학계와 대중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물론이다.

메이지 정부의 역사편찬 사업을 담당하다가 국사학과 개설과 동시에 교수로 부임한 시게노, 구메, 호시노는 대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1820~1830년대 출생인 이들의 수학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폐번치현 이전에 수학했던 이들은 번교(藩校), 막부의 유학 교육 기관 등에서 고증학을 익혔으며, 이것이 이들의 학문적 기반이자 이들이 메이지 정부의 역사편찬사업에 관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한편 이들이 사업을 맡았을 당시는 유럽사를 비롯한 서구 역사학 서적이 유입되던 때로, 이들은 서구 역사학이나 당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각광받던 언어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sup>25</sup> 이렇게 고증학을 기반으로 서구 학문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앞서 살펴본 하야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전화해 가던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성립하던 당시 역사가들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사안』은 “개국 초부터 메이지 22년(1889년-인용자) 헌법 발포까지”를 “21기(紀)”로 나누어 서술한 일본사에 대한 통사였다. “신인무별의 세[神人無別ノ世](제1기)”, “나라조[奈良ノ朝](제7기)”, “오다, 도요토미의 발흥[織豊二氏遞興](제17기)”, “메이지 중흥[明治中興](제21기)” 등과 같이 해당 기의 정치적 특징을 집약하는 이름이 붙여진 각 기는 특별한 이름이 없는 몇 개의 장으로

24 重野安繹·久米邦武·星野恒, 「凡例」, 『稿本 國史眼』(東京: 大成館, 1890). 한편 이에 따르면 이 책은 1877년 파리 만국박람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메이지 정부의 역사편찬 기구였던 修史館에서 일본의 制度·學藝·民業·風俗·物産 등의 기원·연혁을 천황의 世次에 따라 작성한 『日本史略』을 기초로 보완한 것이었다고 한다.

25 이들 3인의 이력, 수학, 역사관 등에 대해서는 永原慶二·鹿野政直(編), 『日本の歴史家』(東京: 日本評論社, 1976), 3~18쪽 및 오구마 에이지(저), 조현설(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서울: 소명출판, 2003), 122~128쪽을 참고할 것.

이루어져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구성을 지닌 이 책을 근대 이전에 등장한 역사서술 방식인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에 입각했다고 밝혔다.<sup>26</sup> 하지만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 전개 과정 및 결과를 서술하는 기사본말체는 인물을 중심으로 또는 시간순으로 서술하여 하나의 사건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운 기전체나 편년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과거를 인과관계에 따라 정리해 과거와 현재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식이다. 한편 『국사안』은 발간 직전 해인 1889년 헌법 발포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주지하듯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면서 서구화·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근대 국민국가로 전화해 나아갔다. 특히 헌법이 발포되고 의회 개설이 예정된 시점에서, 근대 국가인 일본의 구성원으로서 ‘일본 국민’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한 공통의 기억으로써 일본의 과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컸다. 『국사안』은 이러한 시점에 개국부터 당대에 이르는 일본사 전체를 신분·성별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과관계를 드러내 일본의 과거를 현재와의 연결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 일본사였다. 이 점에서 『국사안』은, 비록 기사본말체였지만, 과거와 현재를 연속체로 인식하는 근대적 역사 인식에 입각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에 따라 동질적인 자국사 인식 확보를 통해 소위 ‘국민 만들기’를 위한 일본사 서술이었다고 하겠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학계에서는 이러한 『국사안』을 식민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스사노오에 의한 조선 개국이나 임나일본부와 남선정영 등을 기술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sup>27</sup> 분명 『국사안』에는

26 重野安繹 외, 앞의 책(1890).

27 최혜주, 앞의 논문(2010), 282~284쪽.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진 천황대 대가라에서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사신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다음 천황인 스이닌이 이에 응하여 대가라를 진수(鎭守)하고 그 이름을 임나로 고쳤으며, 임나일본부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서술은 앞서 살펴본 하야시의 『조선사』와 유사하다. 더군다나 『국사안』 제3기의 이름은 “한토복속의 세[韓土服屬ノ世]”이다. 이렇게 별도의 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남선경영이—『조선사』처럼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데에서만 아니라—『국사안』과 같은 일본사를 서술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말해 준다. 즉, 『조선사』와는 달리 일본사를 정리한 『국사안』에는 고대 한일관계가 일본사의 맥락 속에 위치했다.

素盞鳴尊이 出雲에 鎭했다. 大國主命(出雲國의 主神-인용자)은 이를 승낙했다. 新羅 및 常世國과 交通했다. 瓊瓊杵尊도 吾田 산허리가 韓國에 통하는 데에 편하여 都를 정해 海外交通은 國初부터 이미 오래되었다. 常世國은 橘을 생산한다. 南洋의 國인 것이 분명하다. 辰韓에서 鐵을 出한다. 我民 및 馬韓 新羅, 濊人 모두 이를 市했다. 이 海南海東의 諸國群島는 서로 往來했음을 徵할 수 있다. … 支那交通은 漢書에 倭人百餘國歲時來獻이라고 하며, 後漢書에서 말하기를 ‘山島에 依해 居하고 있는데, 무릇 100여 國이다. 武帝가 朝鮮 지금의 盛京省을 멸망시킨 후 에 使譯을 통한 것이 30여 國인데, 이 國 모두 王이라 칭하고 世世 統이 이어졌다. 그 大倭王은 邪馬臺國에 있다.’라고 한다. 30여 國은 아마 西國의 國造일 것이며, 邪馬臺는 大倭이다. 이 西國으로부터 使를 통한 것은 大倭奠都 이후의 일이다. 우리 古史 第4紀 이전(16대 仁德天皇까지-인용자)의 紀年은 확실하지 않다. 神武부터 崇神까지 聖壽는 日本書紀와 古史記의 기재는 같지 않고, 2~300년의 차

28 重野安繹 외, 앞의 책(1890), 12쪽.

이가 있다. 三國志에도 倭人의 壽考는 혹은 100년 혹은 8~90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比例에 의해 年紀가 연장했다고 한다. 이 紀는(『國史眼』第1紀로 神代에서 9대 開化天皇까지-인용자) 대략 저들의 漢代에 해당한다. … 後漢 光武 中元年(57년-인용자) 委奴國의 使가 大夫라 칭하고 朝賀했다. 光武는 이에 印綬를 주었다고 저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100여년 전 天明 4년(1784년-인용자) 筑前 滋賀 島 那珂郡에서 漢委奴國王의 蛇紐金印을 獲했다. 즉 그 印綬이다. 委奴는 三國志에 伊都로 쓰여 있다. 지금의 怡土郡이다. 三國志에서 말하기를 … ‘70~80년이 지나 倭國에서 난리가 일어나서 서로 攻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마침내 모두 함께 한 여자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이름은 卑彌呼라고 한다. … 그 使者가 여러 차례 魏에 朝獻했다고 한다. 또 伊都國은 대대로 王이 있었지만 女王國에 統屬되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女王 卑彌呼를 神功皇后라고 하는 것은 古史의 年紀에 拘해서이다. 또 地理를 살피지 않아 西鄙의 私交를 朝廷의 通聘이라고 誤認했다. 朝廷의 遣使는 東吳로가 처음이고, 通聘은 隋唐에서 시작했다.<sup>29)</sup> (글자 크기 및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 밑줄은 인용자)

다소 길게 제시한 위의 인용문은 일본 건국 이래 대외교통에 대한 『국사안』의 서술로, 기기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 최초의 대외교통은 스사노오가 한국(신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남양으로 보이는 상세국과의 교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대외교통은 1대 진무[神武]천황의 증조부인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머지않아 “해남해동(海南海東)의 제국군도(諸國群島)” 등지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곧바로 고대 중일교통에 대한 장황한 서술로 이어졌다. 한국과 시작된 일본의 해외교통은 남양을 넘어 중국과도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일

29) 重野安繹 외, 위의 책, 7~9쪽.

본의 한국에 대한 교통은 일본인 대외교통의 시작점으로 일본사의 영역 확대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서술을 하며 『삼국지(三國志)』에서 전하는 진한(辰韓)의 철에 대한 사항이나 『漢書(한서)』·『후한서(後漢書)』의 왜(倭) 관련 기록을 제시했다. 이로써 저자들은 전설·설화에 가까운 기기의 신대(神代), 또 저자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 기년을 믿기 어려운 기기 인대(人代) 초반 대외교통 관련 내용을 사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중국의 사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처럼 보이게 하였다. 즉 저자들에게 중국의 사서는 신빙하기 어려운 기기의 기년을 조정하는 기준점이었으며, 특히 중일교통에 대해 저자들은 한서와 후한서를 근거로, 그 시작은 한무제(漢武帝)가 조선을 멸망시킨 중국 한대(漢代)였다고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사안』의 제1기—신대에서 9대 가이카[開化] 천황까지를 중국 한대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

중국 사서와 더불어 『국사안』의 저자들이 고대 일본인의 활발했던 해외교통의 근거로 든 것은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의 사누금인(蛇紐金印)”이다. 저자들은 1784년 규슈 북부 앞바다에 있는 시카노섬에서 발견된 이 금인(金印)을, 역시 중국 사서인 『후한서』 광무제기(光武帝紀)에 기재된 인(印), 바로 건무(建武) 중원(中元) 2년(57년) 왜노국(倭奴國)이 조하(朝賀)했을 때 광무제에게 받은 것으로 보았다.<sup>30</sup> 또 도장에 새겨진 “위노(委奴)”는 3세기 초반의 일을 전하는 『삼국지』 왜전(倭傳)에 나오는 이도(伊都), 즉 규슈 북부 후쿠오카현의 이토군(怡土郡)에 해당한다며, 200여 년 뒤 『삼국지』의 기사 내용과 히미코[卑彌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국사안』의 저자들이 에도시대부터 등장했던 히미코=진구황후설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히미코라는 여왕은 기기에는 없는 반면 한중의 사서인 『후한서』, 『삼국지』, 『삼국사기』에는 등장한다. 기기에서 여왕이라 할 만한 인물은 섭정을 했던 진구황후가 가장 유사

30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하다. 게다가 중국의 사서에 따르면 히미코의 재위 시기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전반인데, 『일본서기』의 기년에 따르면 진구황후의 섭정기가 바로 3세기 전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도시대 이래 히미코를 진구황후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사안』의 저자들은 이를 “고사(古史)의 기년(紀年)”에 구애받았다며 부정하였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저자들은 16대 닌토쿠(仁德) 천황까지 기기의 기년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에도시대 이래의 학자들은 『일본서기』의 기년을 맹신하여 히미코를 진구황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사안』의 저자들이 기기의 기년에 대한 불신을 거듭 제기하고 16대 천황대까지 기년은 확실하지 않다며 기기의 신대와 인대 초반을 중국 한대로 인하한 것은 나카의 ‘기년연장설’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년 조정과 관련하여 히미코를 진구황후로 보는 견해를 “지리를 살피지 않아 오인했다”라고 서술한 것 역시 주목된다. 근대 이전 일본으로부터 한국, 중국 등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도의 서쪽인 규슈를 통해야 한다. 그렇다면 천황이 통치하던 야마토 조정이 규슈를 세력권화 할 때 신라정벌 역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서』와 『후한서』, 『삼국지』가 전하는 시대, 바로 기원 전후 이래 3세기 전반 사이에 해당하는, 30여 소국 각각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던 당시의 유물로, 규슈 앞바다에서 발견된 ‘한위노국왕인’을 “조정(朝廷)의 통병(通聘)”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사안』의 저자들이 볼 때 야마토 조정이 중국 왕조에 사신을 보낸 것은 중국의 오(吳) — 후술하겠지만, 이는 동진(東晉)을 의미한다 — 에게, 통병한 것은 수당대(隋唐代)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위노국왕인’은 어디까지나 규슈 지역에 해당하는 “서비(西鄙)”에서 이루어진 “사교(私交)”의 결과였다. 즉 『국사안』의 저자들은 일본사의 태초부터 한국으로 시작된 일본인의 해외교통은 남양, 중국 등지로 확대되었지만, 적어도 3세기 초까지의 해외교통은 야마토 조정이 아닌 규슈 지방의 세력

들에 의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이 적어도 『일본서기』의 기년에 따른 3세기 전반보다는 이후에 벌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남선경영과 관련하여 『국사안』의 저자들 역시 하야시의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스진 천황대 대가야에서 아마토 조정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소나갈질지를 보냈으며, 이 당시에 임나일본부가 처음 설치되었다고 서술하였다.<sup>31</sup>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조선사』와 달리 일본사에 대한 통사인 『국사안』은 일본사의 전개 속에서 이 사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들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일본사적인 맥락 속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崇神朝 당시 우리 諸國에 큰 疾疫이 있어 百姓의 사망이 大半이고 혹은 背反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大彥命을 北陸에, 武渟川別을 東海에, 吉備津彥을 西道에, 丹波道主命을 丹波에 보내 援撫했다. 命을 따르지 않는 자는 伐하였다. 武埴安彥이 반란을 일으켜 … 大彥이 이를 평정하고, 皇子 豐城入彥을 보내 東國을 鎮했다. 韓의 大加羅國이 新羅와 三己汶의 땅을 다투었다. 蘇那曷叱智를 使로 하여 그 땅을 獻하며 鎮將을 乞했다. 朝議로 鹽乘津彥을 보내 鎮守했다. 垂仁朝에 大加羅를 任那로 改했다. 任那日本府는 여기서 시작한다. 垂仁帝 당시 天日槍의 玄孫 田道間守를 常世國에 보냈는데, 歸朝했을 때 帝는 이미 붕어했다. 山陵에 가 復命하고 自殺했다. 神功皇后의 外祖이다. 이때 支那와의 交通은 韓地에 由하여 帶方郡에 이른다. 저쪽 譯使도 對馬, 壹岐, 松浦를 경유하여 伊都府에 도착한다. 혹은 薩摩에 이른다. 薩摩는 熊襲에 속한다.<sup>32</sup>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 밑줄은 인용자)

31 이는 10대 崇神~13대 成武를 대상으로 하는 『國史眼』第2紀 “神人有別ノ世”에 서술되어 있다.

32 重野安繹 외, 앞의 책(1890), 11~12쪽.

스진대 대가라의 요청에 응해 이를 구원하고, 다음 천황 스이닌이 이를 임  
 나로 개칭했다며, 여기서 임나일본부의 출발을 두는 것은 『일본서기』에 근거  
 한 것으로, 남선경영의 기원을 스진·스이닌대에 두었던 『조선사』와 유사하  
 다. 한편 임나일본부의 설치라는 한일관계의 수립 이후 상세국이나 중국과  
 의 교통도 이루어지며, 한일관계가 일본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시작점  
 으로 위치하는 점은 앞서 살펴본 스사노오 이래 한일관계로 시작된 일본인  
 의 교통 확대라는 서술과 구조적으로 같다. 즉 고대 한일관계의 수립—물론  
 여기서 일본은 늘 우위에 서 있다—은 일본인이 활동 반경을 확대해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을 이루는 사건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그런데 『국사안』에 따르면 대가라의 요청이 있기 전, 일본에 있던 제국(諸  
 國)에서 역병이 돌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반란이 발생하자 스진은 황자(皇子)  
 들을 각지에 보내 이를 평정했으며,<sup>33</sup> 이런 사건 이후에 대가라 구원이 일어  
 났다고 한다. 즉 야마토 조정은 스진대 초에 벌어진 국내 혼란과 반란을 정리  
 해 국내 안정을 찾은 이후 국외의 대가라를 구원하여 임나일본부라는 관가  
 를 설치했으며, 이어 남양은 물론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과도 교통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마토 조정이 한국, 중국 등과 교통한다  
 는 것은 조정의 힘이 규슈 일대까지 뻗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사안』의 저자들이 제시한 당시 중일교  
 통의 경로는 한국에 있는 대방군에서 쓰시마[對馬]-이키[壹岐]-마쓰우라[松  
 浦]를 거쳐 규슈 북부의 이토[伊都] 또는 남부 구마소[熊襲]의 사쓰마[薩摩]에

33 이는 『日本書紀』崇神紀 5년조와 7년 11월조 유행병이 창궐하여 죽는 백성이 매우 많았다는 기사,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역병이 멈추고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기사 및 10년 9월조 武埴安彦과 杵田媛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田道間守를 常世國에 보냈다는 것은 垂仁紀 90년 2월조 田道間守에게 곁을 구해 오라 명했다는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르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토는 제1기를 서술하며 “대대로 王이 있었다”는 “이도국(伊都國)”이 아닌, 조정의 관가를 의미하는 “부(府)”가 덧붙여져 “이도부(伊都府)”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야마토 조정의 힘이 규슈 일대에 미쳤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스이닌대 임나일본부의 설치에 야마토 조정의 세력이 일본 열도 내의 혼란을 제압하고 규슈까지 뻗치게 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자 남양은 물론 중국과 교통의 전제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사안』의 저자들이 스이닌이 죽은 직후 대방군을 경유해 중국과 교통했다고 한 것이다. 대방군 설치가 3세기 초(204년)이니, 대가야 구원과 일본부 설치가 있었던 스진대 말에서 스이닌대 초는 2세기 후반쯤이 될 것이다. 이는 『일본서기』 신대에서 인대 초반을 중국 한대라고 했던 것과도 시기적으로도 들어맞는다. 또 『일본서기』의 기년상 A.D. 70년인 스이닌 사망 직후를 대방군이 있었던 3세기 초 이후라고 본 것을 통해 『일본서기』의 기년이 대략 100여 년 이상 소급되었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정확하게 120년은 아니지만, 나카의 ‘2주갑 인하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사안』에 따르면 스이닌 사후 게이코(景行)(12대) 천황대 “서국(西國) 구마소(熊襲)(규슈 남부)”에 이어 “동국(東國)”에서 반란이 재발했고, 게이코는 이를 평정하고 죽였다.<sup>34</sup> 즉 스이닌대에 야마토 조정은 안정을 찾고 규슈 일대까지 세력을 뻗치며 대가야를 구원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한 이후 중국 등 해외와 교통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안정과 번영은 다음 게이코대에 무너졌으며, 이를 정리한 직후 천황은 사망했다.

이 시점에서 주아이 천황—진구황후의 남편—의 즉위로 시작하는 『국사

34 重野安繹 외, 앞의 책(1890), 13~14쪽. 한편 『日本書紀』景行紀 12, 25, 27, 40년조 등이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안』의 제3기 “한토복속의 세”가 시작된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구 황후의 신라정벌을 다루는 부분이다. 주아이 즉위 후 규슈 남부인 구마소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주아이는 비 진구와 친정에 나섰으며, 이것이 신라정벌의 발단이다. 이때 이루어진 신라정벌에 대한 『국사안』의 서술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본서기』에 근거했다. 친정에 나선 황후는 구마소가 아닌 그 대안(對岸)의 신라정벌을 제안했지만, 천황이 따르지 않은 채 죽자 황후는 직접 구마소는 물론 지쿠고[筑後](후쿠오카 남부)까지 평정한 후—즉 규슈 일대를 정리한 후, 바다를 건너 신라를 정벌, 신라왕의 조공을 약속받고 귀국 후 출산, 섭정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40여 년 후 신라가 백제를 압박하자, 황후는 장군을 보내 백제를 돕고, 아울러 비자(比自), 남가라(南加羅), 탁(噎),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7국을 평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사안』에는 하야시의 『조선사』에 없는 부분이 더해져 있다. 신라정벌 이후 황후는 “신라를 마사부(馬飼部), 백제를 바다 건너의 관가[渡ノ官家]”로 정해 “관사(官司)”를 두었으며,<sup>35</sup> “임나일본부는 이를 총할(總轄)”하고, “도독부(都督府)는 이를 공제(控制, 제어)”한다는 것이다. 즉 야마토 조정은 신라와 백제에도 관청을 두었고, 과거 스이닌대에 설치된 임나일본부는 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격상했으며, 결과적으로 “한지(韓地)인 반도는 완전히 판도(版圖)에 귀(歸)”했다는 것이다.<sup>36</sup>

이처럼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스이닌대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혼란을 정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국사안』에서 고대 한일관계의 수립은 일본인들의 활동 반경 확대의 시발점이자 야마토 조정이 일본 국내에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정리한

35 이는 『古事記』 仲哀天皇 中 神功皇后의 신라 친정 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36 重野安繹 외, 앞의 책(1890), 15~16쪽.

이후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위상 역시 갖는 것이었다. 특히 진구황후 당시 한국이 야마토 조정의 “관도”에 귀속되자 야마토 조정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거친다는 것이 『국사안』의 서술이다.

韓土征服 이후 文藝 · 智巧 · 布帛 · 金銀 · 器械를 海外로부터 傳輸하여 內地의 力을 키워 國運이 愈益旺盛으로 赴했다. … 應神朝에 백제의 사신 阿直岐는 經典을 읽을 줄 알아 帝는 召問하여 저 나라(백제-인용자)의 博士 王人을 불러 王인이 와서 論語 10卷, 千字文 1卷을 獻했다. 皇子 稚郎子(菟道稚郎子-인용자)는 아직기와 왕인에게 학문을 배워 능히 그 文義를 이해하고 학술에 통하여 … 朝廷이 漢學을 講한 것은 이때 시작했다. 이전에 문자는 微할 수 없다. 아마 譯部가 있어 漢字를 訓讀했을 것이다. … 아직기는 依縫女를 貢했다. 왕인은 鍛工, 織工을 이끌고 왔다. 이로부터 倭鍛部, 韓鍛冶 兩工이 있게 되었다. 秦 功滿의 裔 弓月君은 백제에서 127縣의 인구를 이끌고 귀화했다. 이를 秦氏라 한다. 또 漢主劉宏의 裔 阿知使主 父子는 17縣의 인구를 이끌고 귀화했다. 이를 漢氏라 한다. 이때 支那는 西北의 種으로부터 北半部를 侵取당해 여러 國으로 分열했는데, 五胡의 亂이라 한다. 晉帝는 겨우 南半部를 有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貳라 했다. 帝는 阿知를 貳에 보내 織縫女를 구했는데, 高麗에서 嚮導를 얻어 貳의 工女를 이로써 歸했다. 仁德朝에 秦氏를 諸國에 分處해 蠶織을 일으켰다. 秦漢 2氏는 繁殖해 第4紀(17대 履中~25대 武烈까지-인용자)에는 工藝術이 크게 나아갔다.<sup>37)</sup> (강조점은 원문 그대로)

즉 “한토정복” 이후 야마토 정권은 아직기와 왕인을 통해 천자문과 학문 및 옷감을 짜는 것이나 쇠를 단련하는 기술 등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37 重野安繹 외, 위의 책, 17~18쪽.

5호 16국의 혼란에 휩싸였던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민이 유입되어 잡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삼국 및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선진문화·기술이 일본 사회를 발달시키는 계기였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하야시의 『조선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이다. 단 한국사를 서술하는 『조선사』와는 달리 일본의 역사적 전개·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국사안』은 그 이후의 일본 사회에 대해 서술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4기에 이르러 공예술이 크게 나아갔다.”라는 서술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제4기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재화와 문물이 유입됨에 따른 일본 사회와 야마토 조정의 발달상에 대한 것이었다. 문자와 학문의 유입에 따른 역사편찬의 시작과 사부(史部)의 설치, 삼국과 임나로부터의 공선(貢船)에 의한 국고의 충실, 원예술의 발달, 중국(東晉)으로의 사신 파견과 재기(才技)의 유입 및 의봉부(衣縫部)의 설치, 위(魏)에서 진귀(辰貴)가 귀화함에 따른 왜화(倭畵)의 시작 등이 그것이다.<sup>38</sup> 이처럼 “한지”가 야마토 조정의 “관도”가 된 후 한국은 물론 중국 등으로 확대된 일본인의 활동 영역으로부터 사람과 기술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 사회에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양상—문자기록술, 유학, 역사편찬 등이 나타나며 일본 사회가 질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 제4기의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서술된 『국사안』 제4기의 이름은 “야마토의 성세[大和ノ盛世]”이다. 즉 “한토복속의 세”(제3기)를 지나 야마토 조정은 번성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저자들은 진구의 신라정벌 이후를 5호 16국 당시라고 밝혔다. 이때 중국 왕조는 동진인데, 일본인은 이를 오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 15대 오진 천황은 고구려를 통해 오로부터 “직봉녀(織縫女)”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이 내용은 오진 37년 2월조로, 『일본서

38 重野安繹 외, 위의 책, 22~24쪽.

기』의 기년에 따르면 306년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신뢰하는 중국의 정사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교통은 3세기 전반, 바로 대방군을 통해 교통하던 당시 이후 보이지 않다가 5세기 초인 413년에 다시 나타난다. 『진서(晉書)』 권10 안제기(安帝紀) 의희(義熙) 9년 기사가 그것으로, 바로 고구려와 왜 등이 방물(方物)을 바쳤다는 것이다.<sup>39</sup> 『일본서기』의 기년을 중국의 사서를 기준으로 사고하던 저자들이 중국 정사의 기록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 또 저자들이 『일본서기』의 기년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비추어 볼 때, 306년에 해당하는 오진 37년은 적어도 413년 이후의 일이 되는 것으로, 저자들은 여기서도 『일본서기』의 기년은 100여 년 이상 소급되었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일본서기』의 기년상 200년에 있었던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적어도 300년 이후, 즉 4세기 초의 일로 비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하야시의 『조선사』 발간 2년 전에 등장한 『국사안』 역시 기기의 기년을 조정하여 남선경영설을 비롯한 고대 한일관계를 역사적 사실로 보이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사에 대한 통사였던 이 저작에서 고대 한일관계는 일본사적 맥락에서 고대 일본인의 활동 반경이 확대되는 시작점이자 야마토 조정이 혼란을 벗어나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결절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사건으로 그려졌다.

#### IV. 맺음말

1890년대 등장한 『조선사』나 『국사안』 등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저술된, 한국으로의 침략 논리를 제공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출

39 是歲,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並獻方物.

발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시점은 일본에서 대학의 사학과와 역사 전문 학회와 같은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에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때로, 이 저술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저술의 출발점으로도 평가된다. 때문에 침략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든, 일본민족의 발달 과정을 실증하기 위해서든, 이 저작이 이후 일본의 학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했다.

이 저작들이 식민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대 야마토 조정이 남선 지방을 지배했다는 남선경영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일관계사라 할 수 있는 남선경영설은 한국사만이 아니라 일본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논의되어야 했던 사항이었다. 이 논문은 근대 이전 일본의 전시기라 할 수 있는 원구,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 사회에 유포되었다는 남선경영설이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태동하던 당시를 대표하는 이 두 저작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 또 이 두 저작에 서술된 남선경영설이 침략의 합리화 외에 일본사의 맥락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 것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저작들은 모두 야마토 조정에 의한 남선경영의 시작을 10·11대 천황인 스진·스이닌대 대가야의 구원 요청에 응한 것에 두고,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 복속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는 물론 신라와 고구려까지도 야마토 조정에 조공을 바쳤다고 서술했다. 이는 분명 식민주의 역사학의 침략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또는 지배를 이야기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삼국의 조공을 통해 중국에서 기원하는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유입되었다는 내용 역시 서술한 것이다. 즉 일본사의 맥락에서 볼 때 남선경영은 일본 사회의 내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륙의 선진적인 문물과 기술이 일본에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조선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었지만, 『국사안』은 일본

사의 전개 과정에서 속에서 남선경영을 서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사의 맥락에서 갖는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스사노오의 한국 도래 직후 일본은 남양·중국 등지와도 교통을 개시했으며, 이는 스진·스이닌대에도, 또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일본이 우위에 서서 구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대 한일관계는 일본의 대외 관계가 확대되는, 그래서 일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일본사의 범위 역시 팽창하는 기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이뿐만 아니라 임나일본부의 기원으로 설정된 스진·스이닌대와 남선에서 야마토 조정의 세력 팽창을 가져온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천황이 통치하던 야마토 조정이 국내의 질병이나 반란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일단락 지은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다. 특히 『국사안』은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삼국의 조공 등을 통해 선진적인 문물과 기예를 받아들여 “야마토의 성세”가 이루어졌다고까지 보았다. 즉 일본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의 설치라는 남선경영은 국내적 혼란이라는 한 축에서 일본인 활동의 확대·사회적 발전이라는 또 다른 축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았을 제국대학 국사학과 초대 교수들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이후 큰 영향력을 끼친 『국사안』에서 남선경영은 고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야마토 조정이 국내의 불안을 정리·평정하고 한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후 일본인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본 사회 내부의 질적 성장의 출발점이었다는, 바로 야마토 조정의 발달에 관한 서사를 완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2년 후에 출간된 『조선사』는 일본사가 아닌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선경영과 관련하여 『국사안』에서 논한 것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선경영을 통해 유입된 선진 물물이 일본 사회 발전을 도왔다는 것만은 밝혔다고 하겠다.

『국사안』과 『조선사』에서 제시한 이상의 사항은 모두 기기에 근거한 것으로, 기기가 편찬된 8세기 이후, 근대 이전인 원구나 임진왜란 등과 같은 전쟁기에 남선경영이나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야기는 일본 사회에 유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기의 기사는 인간이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전설·설화에 가까운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기년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의심받았다. 때문에 기기의 기년 조정은 기기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래서 기기를 역사 연구·서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선구자였던 『국사안』과 『조선사』의 저자들은 기기의 기년을 조정하여 남선경영설을 근대 역사학의 자장 안으로 끌어왔다. 저자들은 기기 초반의 기년은 연장되었으며, 남선경영에서 결정적인 『일본서기』 진구기와 오진기의 기년은 120년 소급되었다는 나카의 기년론을 수용하여 남선경영과 관련된 기기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승격시켰다. 이 점에서 이 저작들에서 서술된 남선경영설은 근대 이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1949년에 출간한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는 당시까지 논의되었던 남선경영설을 종합했으며, 이후 이 논의가 적어도 1970년대까지도 일본학계의 정설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스에마쓰는 『국사안』과 『조선사』에서 임나일본부의 출발점으로 보았던 스진·스이닌대의 『일본서기』의 기사는 “단지 그 연대를 끌어 내리는 것에 의해 사실의 기재로 전화(轉化)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sup>40</sup> 하지만 스에마쓰 역시 남선경영을 논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본서기』 진구기와 오진기의 기년을 2주갑 인하하였다.<sup>41</sup> 즉 스에마쓰도 남선경영설에서 가장 결정적인 진구황후의 신라

40 末松保和,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東京: 吉川弘文館, 1996), 21쪽. 이는 末松의 논저를 재발간한 것으로, 여기서 인용한 『任那興亡史』는 이 판본에 의거했다.

41 末松保和, 위의 책, 44~45쪽.

정벌을 4세기 초반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로 본 것인데, 이는 ‘2주잡 인하설’에 따른 『조선사』는 물론 기년연장설에 입각하여 서술한 『국사안』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도 『임나홍망사』의 마지막은 남선 지방에 있던 야마토 조정의 관가인 일본부의 소멸이 아닌 기원 전후 이래, 특히 4세기 이후 남선지배를 통한 문화의 수용과 도래인에 대한 논의로 끝을 맺는데, 그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다.

645년 착수한 大化改新은 樂浪期 이래 600 내지 700년간 축적된 대륙문화가 일본의 국토에, 일본 사회에 一般化되고 具體化된 최초이자 최대의 기회였다. 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日本上代史 一面의 推移는, 앞서 보아 왔듯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任那問題를 매개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任那問題의 結말이 大化改新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sup>42</sup> (밑줄은 인용자)

낙랑군 설치 당시부터 일본은 대륙과 교통하며 대륙문화를 흡수했고, 이는 임나에 야마토 조정의 관가가 있을 당시 가장 왕성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관가가 사라졌을 즈음 그동안 수용한 대륙문화를 자기화했던 일본인들은 다이카 개신을 이루었다는 것이 『임나홍망사』의 최종 결론인 것이다. 이처럼 고대 한일관계, 특히 남선경영은 야마토 조정의 국외 팽창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내적 발전이라는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이는 일본 근대 역사학의 초창기 저작인 『국사안』과 『조선사』에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즉 일본인 역사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속체로 인식하며 자신이 위치한 당대까지 이르는 일본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에, 특히 고대사와 관

42 末松保和, 위의 책, 181쪽. 『任那興亡史』의 마지막 章의 이름은 “任那問題と日本上代文化”이다.

련하여 야마토 조정과 일본 사회의 발달을 실증하는 데에 남선경영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가 끝난 1945년 이후에도 남선경영설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비록 시간이 더 흘러 일본의 역사가들이 남선경영설이 갖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식의 논의는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고대 일본민족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해명은 절실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지속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편 남선경영설과 더불어 식민주의 역사학의 고대사 연구의 또 다른 축을 이루었던 낙랑군에 대한 논의는 1890년대의 저작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강점 이후 일본인 역사가들이 낙랑군을 통해 선진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조정은 빠르게 성장해 이른 시기에 일본 국내에서 통일적 권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기반에서 남선을 경영했다는 논의를 전개했다는 연구를<sup>43</sup> 고려할 때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초창기 저작으로 이후 일본의 학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국사안』과 『조선사』에서 낙랑군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이외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도 일본의 학계와 정계에는 중국인은 한국에 이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한다. 당시 청(淸)이나 러시아 세력을 한국으로부터 쫓아내어 한국을 점유해야 한다는 정치상의 동향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여 낙랑·대방군 모두 만주에 있었다는 견해조차 등장했다는 것이다.<sup>44</sup> 게다가 한국에 대한 학술적 조사, 특히 낙랑군이 있었다는 대동강 일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것은 강점 이후였고, 낙랑군의 위치가 확정된 것은 1912년 경이었다. 이와 같은 1890년대 초반 일본 학계 및 사회의 분위기 및 학술조

---

43 정상우, 앞의 논문(2021); 정상우, 앞의 논문(2024); 김성현·정상우, 앞의 논문(2022); 김성현·정상우, 앞의 논문(2024).

44 林直樹,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 14(1999), 61쪽.

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위치조차 확증하지 못할 정도로 미지의 대상이었던 낙랑군에 대해 『국사안』과 『조선사』의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인 역사가들의 낙랑군에 대한 언급은 강점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後漢書』, 『晉書』.

末松保和, 『古代の日本と朝鮮—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4』, 東京: 吉川弘文館, 1996.

林泰輔, 『朝鮮史』 卷1·2·3·4, 東京: 吉川半七, 1892.

重野安繹·久米邦武·星野恒, 『凡例』, 『稿本 國史眼』, 東京: 大成館, 1890.

### 2. 논저

권오영, 「일본 아스카 시대 묘제와 장제에 나타난 한반도계 이주민의 영향」, 『人文論叢』 80-3, 2023, 139~181쪽.

김성현·정상우, 「쓰다 소키치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정벌을 통해 어떠한 歷史像을 그려냈는가」, 『史學研究』 145, 2022, 253~293쪽.

김성현·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의 연속과 불연속: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5, 2024, 359~403쪽.

김태식, 「고대 한일관계 연구사: 임나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7, 2002, 15~51쪽.

나가하라 게이지(저), 하종문(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서울: 삼천리, 2011.

오구마 에이지(저), 조현설(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 2003.

위가야, 「삼한·삼국 분국설의 구상과 파급」, 『史學研究』 137, 2020, 89~124쪽.

이성시(저), 박경희(역),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동아시아사의 행방』, 서울: 삼인, 2019.

이연심,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 2015, 117~143쪽.

李永植, 「日本書紀의 研究史와 研究方法論」, 『한국고대사연구』 27, 2002, 141~194쪽.

정상우,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62, 2021, 9~45쪽.

정상우, 「한반도를 매개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기: 임나일본부, 낙랑군에 대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105, 2024, 163~193쪽.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 서울: 나남출판, 1998.

崔在錫, 『日本古代史研究批判』, 서울: 一志社, 1990.

- 최재석, 「1892년 하야씨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고대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8, 2003, 233~243쪽.
- 최혜주,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010, 273~313쪽.
- 江上波夫(編), 『東洋學の系譜』, 東京: 大修館書店, 1992.
- 稻葉岩吉, 「東洋史學發達の回顧と展望: 朝鮮史」, 『明治以後に於ける歴史學の發達』, 東京: 歴史教育研究會, 1932, 511~524쪽.
- 永原慶二·鹿野政直(編), 『日本の歴史家』, 東京: 日本評論社, 1976.
- 林直樹,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青丘學術論集』 14, 1999, 51~75쪽.
- 町田三郎, 「東京大學『古典講習科』の人々」, 『哲學年報』 51, 九州大學文學部, 1992, 59~78쪽.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국 일본의 대표적인 침략 논리인 남선경영설이 일본사의 전개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식민주의 역사학의 출발점이자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에 입각한 역사서술의 초기작인 『조선사(朝鮮史)』와 『고본 국사안(稿本 國史眼)』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이 저작들은 모두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 또는 지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삼국의 조공을 통해 중국에서 기원하는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유입되었다는 내용 역시 서술했다. 『조선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었지만, 『국사안』은 일본사의 전개 과정에서 남선경영을 서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사의 맥락에서 갖는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의 설치라는 남선경영은 국내적 혼란이라는 한 축에서 일본인 활동의 확대·사회적 발전이라는 또 다른 축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남선경영설은 8세기에 편찬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근거한 것으로, 근대 이전에 일본의 전쟁기에 회자되었다. 『국사안』과 『조선사』 역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만 실린 남선경영설을 서술했다. 하지만, 이 두 저작은 모두 전설과 설화에 가까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기사를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한 기년 조정을 통해 믿기 어려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승격시켰다. 이 점에서 이 두 저작에서 서술한 남선경영설은 근대 이전 일본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한편 19세기 말 이래 제기되었던 남선경영설을 종합했다고 평가되는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1949년작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는 일본부의 소멸이 아닌 다이카 개신으로 끝을 맺는다. 기원 전후 이래, 특히 4세기 이후 남선지배를 통해 수용한 대륙의 문화를 일본인들이 소화시킨 결과 남선지배가 끝났을 즈음에 일본인들은 다이카 개신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 한일관계, 특히 남선경영은 야마

토 조정의 국외 팽창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내적 발전이라는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이는 일본 근대 역사학의 초창기 저작인 『국사안』과 『조선사』에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즉 일본인 역사가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속체로 인식하며 자신이 위치한 당대까지 이른 일본의 과거를 재구성하는데, 특히 고대사와 관련하여 아마토 조정과 일본 사회의 발달을 실증하는 데에 남선경영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끝난 1945년 이후에도 남선경영설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비록 시간이 흘러 일본의 역사가들이 남선경영설이 갖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식의 논의는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고대 일본민족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해명은 절실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지속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투고일 2026. 4. 2.

심사일 2026. 4. 30.

게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식민주의 역사학(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근대 역사학(Modern Historical Science), 남선경영설(南鮮經營說,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 『朝鮮史』(*The Chousensi*), 『稿本 國史眼』(*The Kokusigan*), 기년 조정(chronology adjustment of *Kojiki* and *Nihonshogi*)

### The Meaning of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i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istory: Focusing on *The Chousensi* and *The Kokusigan* Written in the 1890s

Jeong, Sangwoo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南鮮經營說), which functioned as a justification for imperial Japan's expansionism, i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istorical narratives. The study focuses on *The Chousensi* (『朝鮮經營史』) and *The Kokusigan* (『國史眼』), which represent both the starting point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early historical narratives based on modern historical scholarship in Japan.

Although both *The Chousensi* and *The Kokusigan* primarily address Japanese history, they clearly articulate the significance of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within the broader development of Japanese history. According to these works, in ancient Japanese history,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functioned as a nodal point linking periods of domestic instability with phases of expansion and the broader social development of Japanese activities.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is based on the *Kojiki* (『古史記』) and *Nihonshogi* (『日本書紀』), which were compiled in the eighth century, and the idea had already circulated during Japan's premodern wartime periods. *The Chousensi* and *The Kokusigan* were likewise based on *Kojiki* and *Nihonshogi*. However, these two works promoted the contents of *Kojiki* and *Nihonshogi*, which are difficult to verify, as accepted historical facts through chronological adjustments based on Chinese and Korean historical records. In this respect,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described in these two works differed qualitatively from earlier premodern interpretations in Japanese society.

Furthermore, Suematsu Yasukazu's *The Rise and Fall of Mimana* (『任那興亡史』, 1949), which is considered to have synthesized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sinc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concludes with a

reformation of Daika. According to Suematsu, the Japanese achieved the Daika reform after the end of their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because they had already absorbed continental culture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Southern Line rule since the early centuries CE, especially after the fourth century.

Thus,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especially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constituted crucial elements in historical narratives concerning not only the Yamato government’s overseas expansion but also explanations of the internal development of Japanese society. These ideas were present in *The Chousensi* and *The Kokusigan*, two early works of modern Japanese historical scholarship. In other words,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southern Korea became indispensable for Japanese historians seeking to conceptualize the past and present as a continuum and link the past to their contemporary present. It also discussed the Yamato 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ociety. In order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ancient Japanese people, it was imperative to explain the history of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represented by the assertion of Japan’s dominance over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erefore, it appears that its influence continued even after 1945.